

- 사생결단 기도회 넷째 날 -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전도 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진실이 바로 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난 그리 심판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지옥간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내가 어떤 죄를 ()의 개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의 유무나 경중을 가지고 죄를 해석하고자 하기에, 자기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혹은 심판받고 지옥 갈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1. “()의 결과론적 해석만이 아닙니다.
2. 죄의 무게에 따른 심판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3.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4.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9)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삶에 어떤 죄가 드러날 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선포합니다.

17 그러므로 사람이 ()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17)

1. 무엇이 옳은 줄 알고서도 그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2.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3 ()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3)

1.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에, () 이성과 능력으로 보고자 함이 죄일 수 있습니다.
2. 믿음의 ()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3. 믿음의 ()을 가지고 사모하고 덤벼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행복을 주도하고 싶어 했던 그 ()이 결국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죄의 권세 아래 갇히도록 만든 것입니다.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5)

모든 사람은 죄의 열매와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2. 생각, 판단, 결정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결코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3. 진정한 삶과 환경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들조차 죄의 열매와 결과를 나타냅니다.

1.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다시 사신 하나님을 ()으로 모셔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의 창조목적대로 삶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보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인 셈이다.

1. 결국 우리는 어떤 지은 죄, 구체적인 드러난 죄악들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2.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죄인된 신분 자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상태,
3. 피조물이 창조주를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37-38)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이 선언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은 누구나 나쁜 짓을 조금씩은 다 하고 산다는 ‘()’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은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임한 ‘()’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오는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면 어찌할꼬?”를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것, 죄의 결과를 말하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도입니다.
- 노진준, “회복하라” (지혜의샘, 2014)

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의 목적은,

1. 죄인됨의 인식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2. 죄인된 우리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필요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죄인 됨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의 ()”인 것입니다.